

노인케어 직무에 대한 수행도 및 실습교육요구도 비교에 관한 융합연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소권섭¹, 김용덕^{2*}, 황혜정¹

¹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²건양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and Practical Training Needs for Elderly Care Service on Convergence Study

—Focusing on Senior Caregivers, Social Workers and Nursing Assistants—

Kwon-Seob So¹, Yong-Duck Kim^{2*}, Jeong-Hye Hwang¹

¹Professor, Dept. of Healthcare &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Faculty of Liberal arts education, Ko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노인케어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케어 전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자료는 2019년 11월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K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노인케어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카이제곱검정,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 method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케어 전문교육 요구도는 요양보호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노인케어 온라인 교육요구도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수행도에서 ‘노인에 대한 이해와 상담’과 ‘노인 놀이프로그램 실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순 이었고, 실습 교육 요구도에서 ‘치매와 호스피스 및 웰다잉교육’은 사회복지사가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노인전문케어 필요성 및 노인케어 온라인 교육의 요구도에 따른 각 군별 맞춤형 전문화된 온라인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추후 효과를 검증하는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노인케어, 노인케어 전문교육 요구도, 노인케어 온라인 교육요구도, 수행도, 실습 교육요구도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n online education program of elderly care service for the senior caregivers. Online survey was conducted senior caregivers who attended K cyber university from November 28, to December 15,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ANOVA and post test by scheffe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needs of the online education program for senior caregiv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ursing assistants. Social work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ursing assistants in the elderly care service online education demand. In terms of performance,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for the elderly’ and ‘practice of the elderly play program’ were social workers, senior caregivers and nursing assistant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pecialized online education contents for each group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elderly professional care and the demand of online education for elderly care service.

Key Words : Elderly care service. Elderly care service education needs, Elderly care service online education needs, Performance, Practice education needs

*Proceed with approval of Konyang University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KYU-2019-342-01)

*Corresponding Author : Yong-Duck Kim(ydkim@kycu.ac.kr)

Received November 26, 2019

Revised December 26,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9년 14.9%로 1970년(3.1%)에 비해 5배로 증가한 수준이며,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67년에는 46.5%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으로 이를 압축적 고령화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향후 우리 사회에 노동인구 부족, 노후생활 부담, 의료비 증가로 인한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증가, 출산력 저하,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의 부정적 현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된다[1,2]. 인구 고령화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늘어나고 치매와 중풍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고령의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한 가정에서 부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3].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의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제정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삶의 질 및 부양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력하였는데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2008년 5,576개에서 2019년 21,671개로 늘어났고[4],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범위가 2014년 이전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되고 2018년 인지기원등급 등이 신설되면서 요양서비스의 대상자가 넓어지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5].

현재 노인장기요양에 있어서 노인 돌봄의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은 요양보호사라고 할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 외에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등이 현장에서 노인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반기 통계에 의하면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서 노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 363,568명, 사회복지사 20,531명, 간호조무사 10,266명, 간호사 2,993명, 의사(축척 포함) 2,187명 등으로 나타났다[6]. 장기요양서비스는 서비스 당사자 개인별 잔존능력상태를 파악하고 당

사자 개인에 적합한 기능회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교육 및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하다[7].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8].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과정은 신규자 기준,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교과목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그리고 '특수요양보호각론'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기본 요양보호 기술', '가사 및 일상생활',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치매 요양보호 기술',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 기술', '응급처치 기술' 등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9].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세부 업무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배설, 식사, 목욕을 돕고, 세면과 옷 갈아입히기 등 기본위생관리와 몸단장을 수행한다. 또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이나 병원 방문, 쇼핑, 심부름 등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활동과 정서지원 등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유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듯 대상자 옆에서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도록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Park와 Lee[3]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객관화·표준화 되어 있지 못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취득 후 실시하는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규정이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면대면 강의식 교육으로 인한 낮은 참여율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직업성을 강화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Sa와 Yoon[10]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은 면대면 교육의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요 노인케어 종사자 간 노인케어 전문교육 요구도 및 필요, 수행도 및 실습교육요구도를 비교하여 노

인케어 전문교육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노인케어 전문교육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인케어 전문교육 요구도 및 필요이유를 파악하고 각 집단별 노인케어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 노인케어 전문교육의 요구도 및 필요이유를 파악한다.

둘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 실무형 온라인 노인케어 전문교육의 요구도 및 필요이유를 파악한다.

셋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 노인케어 관련 직무수행도 및 실습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이 연구는 D시에 위치한 K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노인케어 관련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노인케어 관련 수행도, 교육요구도 및 현장실습 요구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양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K사이버대학교 보건 및 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케어 관련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학생 중 연구참여 의지를 밝힌 1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Song, Kim과 Yang[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95로 하여 G-power 3.1.2 프로그램으로 적정 표본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계산한 결과 100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 10%를 감안하여 직종과 경력에 부합하는 총 110부를 온라인 배부하여 105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5.4%), 불완전한 데이터 5부를 제외한 100부를 최종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근무기관, 분야, 근무경력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노인케어 전문교육의 요구도

노인케어 전문교육 및 노인케어 온라인 교육의 요구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필요하다' 4점, '필요하다' 3점, '필요없다' 2점, '매우 필요없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케어 전문교육, 온라인 교육의 필요이유 및 노인케어 교육을 위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Cronbach's α 는 .442이었다.

2.3.3 노인케어에 대한 수행도

노인케어 관련 수행도에 활용한 연구도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한국요양보호사 교육(요양보호사 취득 교육)과정에 의해 도출된 도구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교육내용으로 제시된 요양보호 직무 내용과 Song, Kim과 Yang의 연구[11]에서 사용한 도구를 비교하고 수정 보완하여 노인 케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준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적용하여 기본적인 교육과정 개발 프레임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노인복지를 전공한 교수 2인과 노인간호를 전공한 교수 2인, 예방의학을 전공한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항목으로 구분하여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상담 10문항, 노인놀이 프로그램 7문항,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 10문항,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 12문항, 노인시설운영관리 위한 법제도와 윤리강령 10문항,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위한 설치, 지정, 절차 10문항 총 5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많이한다' 4점, '많이함' 3점, '적게함' 2점, '매우 적게함' 1점의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3이었다.

2.3.4 실습관련 교육 요구도

노인케어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중 실습의 필요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Song, Kim과 Yang의 연구[11]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노인복지를 전공

한 교수 2인과 노인간호를 전공한 교수 2인, 예방의학을 전공한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사용하였다. 실습 교육요구도 도구는 수행도와 같은 총 59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필요하다' 4점, '필요함' 3점, '필요하지 않음' 2점, '매우 필요하지 않음'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9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자료수집 전 K 대학교의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IRB 승인번호: KYU-2019-342-01)을 받은 후 K 사이버대학교 복지 학부장의 허락 하에 2019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K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공지란에 설문 참여 여부에 대한 안내를 공고 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케어 관련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학생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지를 밝힌 110명에게 대해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에는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설문지 작성 중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온라인 공지하여 실시하였다.

2.5 자료분석

이 연구의 수집된 자료 분석은 R version 3.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 0.05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노인케어전문교육의 요구도는 Kolmogorov-Smirnov의 정규성 검정 후 카이제곱 분석, Fisher의 정확한 검정 및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으로는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 군별 노인케어 직무에 대한 수행도 및 실습교육 요구도는 및 상관관계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으로는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자 88.0%, 남자 12.0%로 여자가 많았다. 연령은 40세 이상 49세 이하 38.0%, 50세 이상 59세 이하 37.0%, 39세 이하 25.0%, 60세 이상 7.0%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45.84 ± 10.07 세이었다.

근무기관은 노인병원 및 요양원 38.0%, 재가복지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31.0%,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3.0% 순이었다. 분야는 간호조무사 56.0%, 요양보호사 25.0%, 사회복지사 19.0%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5년 초과 67.0%, 2년에서 5년은 23.0%, 1년에서 2년미만은 10.0% 순이었다.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ies	(n=100)	
	n	%
Gender		
Female	88	88.0
Male	12	12.0
Age(year)		
≤39	25	25.0
40-49	38	38.0
50-59	37	30.0
≥60	7	7.0
45.84 ± 10.07		
Working organizatio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13	13.0
Geriatric hospital, nursing home	56	56.0
Home welfare center Day care center	31	31.0
Department		
Senior caregiver	25	25.0
Social worker	19	19.0
Nursing assistant	56	56.0
Work experience(year)		
<2	10	10.0
2-5	23	23.0
>5	67	67.0

3.2 노인케어 전문교육의 요구도

노인케어 전문교육 요구도 평균 4점 만점에 3.62 ± 0.59 점이었고, 요양보호사 3.88 ± 0.33 점, 사회복지사 3.79 ± 0.71 점, 간호조무사 3.45 ± 0.60 점 순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요양보호사가 간호조

무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노인케어 온라인 교육요구도 평균 4점 만점에 3.47 ± 0.58 점 이었고, 사회복지사 3.79 ± 0.42 점, 요양보호사 3.40 ± 0.58 점, 간호조무사 3.39 ± 0.59 점 순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노인케어 온라인 교육 필요 이유 다중응답 실시 결과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어서’ 52%로 가장 높았고 직접 교육장소에 가서 받을 시간이 없어서 43%, 전문교육을 받고 싶어서 41%,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으로는 부족해서 22%, 요양보호 교육내용으로는 불충분해서 16%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케어 교육을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을 다중응답 실시한 결과 모바일로 구현 가능한 e-book 형태의 교재 52%, 현장실습 45%, 무료교육 44% 순이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 Table 2와 같다.

3.3 노인케어 직무에 대한 수행도 및 실습교육 요구도

노인케어 직무에 수행도는 및 실습교육요구도는 총 6개 직무로 구성하였다.

노인케어 직무에 수행도 중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상담’에서는 사회복지사 3.26 ± 0.87 점, 요양보호사 2.88 ± 0.73

점, 간호조무사는 2.64 ± 0.96 점 순으로 조사되었고, 사후분석 결과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노인 대상 실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에서는 사회복지사가 3.11 ± 0.88 점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수행도로 조사되었고, 사후분석 결과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 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에서는 사회복지사가 2.79 ± 0.92 점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수행도로 조사되었고, 사후분석 결과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시설운영관리 위한 법제도와 윤리강령’에서도 사회복지사가 2.53 ± 1.07 점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수행도로 조사되었고, 사후분석 결과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 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노인케어 직무에 실습 교육 요구도 중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에서는 사회복지사가 3.74 ± 0.45 점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수행도로 조사되었고, 사후분석 결과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다음 Table 3과 같다.

3.4 노인케어 직무에 대한 수행도 및 실습교육 요구도 순위

Table 2. Elderly care service professional education needs

Categories (n=100)	Total	unit: n(%), Mean±SD		
		Senior caregiver ^a (n=25)	Social worker ^b (n=19)	Nursing assistant ^c (n=56)
Elderly care service professional education needs	3.62±0.59	3.88±0.33	3.79±0.71	3.45±0.60
Reasons for needing elderly care service				
To turn around or start a business	20(20.0)	5(20.0)	1(5.3)	14(25.0)
To improve professionalism	80(80.0)	20(80.0)	18(94.7)	42(75.0)
Elderly care service online education needs	3.47±0.58	3.40±0.58	3.79±0.42	3.39±0.59
Reasons for online training(multiple responses)				
It is not enough in contents of Senior caregivers education institution	16(16.0)	2(8.0)	7(36.8)	7(9.0)
Conservative education and job training are not enough	22(22.0)	5(20.0)	4(21.1)	13(23.2)
I want to get professional training	41(41.0)	9(36.0)	10(52.6)	22(39.3)
I don't have time to go to the training	43(43.0)	12(48.0)	4(21.1)	27(48.2)
You can be educated anytime, anywhere	52(52.0)	16(64.0)	9(47.4)	27(48.2)
More needs for elderly care service education(multiple responses)				
Free training	44(44.0)	9(36.0)	6(31.6)	29(51.8)
Field practice	45(45.0)	11(55.0)	9(47.4)	22(39.3)
Mobile e-book textbook	52(52.0)	16(64.0)	10(52.6)	26(46.4)

¹⁾ by ANOVA test and post test by scheffe method, ²⁾ by fisher's exact test, ³⁾ by chi-square test.

Table 3. Comparison of performance and practical training needs for elderly care service jobs

Categories	(n=100)	
	Performance	Practical Training Needs (PTN)
	Mean ± SD	Mean ± SD
Understanding the elderly and counseling the elderly(A)	$p=0.034^{b>c 1)}$	$p=0.436$
Senior caregiver ^a	2.88 ± 0.73	3.20 ± 0.58
Social worker ^b	3.26 ± 0.87	2.89 ± 1.15
Nursing assistant ^c	2.64 ± 0.96	2.98 ± 0.82
Implementation of programs that can be operated for the elderly(B)	$p=0.018^{b>c 1)}$	$p=0.789$
Senior caregiver ^a	2.48 ± 0.92	3.24 ± 0.60
Social worker ^b	3.11 ± 0.88	3.11 ± 1.08
Nursing assistant ^c	2.38 ± 1.00	3.11 ± 0.82
Understanding of elderly disease, first aid, rehabilitation and physical therapy(C)	$p=0.115$	$p=0.987$
Senior caregiver	2.80 ± 0.82	3.20 ± 0.50
Social worker	3.00 ± 0.82	3.16 ± 1.07
Nursing assistant	2.53 ± 0.96	3.18 ± 0.90
Dementia, hospice and well dying(D)	$p=0.011^{b>c, b>a 1)}$	$p=0.005^{b>c, b>a 1)}$
Senior caregiver ^a	1.92 ± 0.76	3.12 ± 0.60
Social worker ^b	2.79 ± 0.92	3.74 ± 0.45
Nursing assistant ^c	2.16 ± 1.04	3.09 ± 0.88
Legal system and code of ethics for facility operation management(E)	$p=0.020^{b>a 1)}$	$p=0.671$
Senior caregiver ^a	1.68 ± 0.69	2.44 ± 0.77
Social worker ^b	2.53 ± 1.07	2.42 ± 0.84
Nursing assistant ^c	2.11 ± 1.06	2.59 ± 0.93
Installation, designation, and procedures for starting a long-term care institution(F)	$p=0.058$	$p=0.468$
Senior caregiver	1.60 ± 0.66	2.48 ± 0.71
Social worker	2.26 ± 1.15	2.26 ± 0.87
Nursing assistant	2.04 ± 0.99	2.55 ± 0.95

¹⁾ by ANOVA test and post test by scheffe method.

요양보호사 직군의 수행도 순위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상담’(A),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 응급처치, 재활 및 물리치료’(C), ‘노인 대상 실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B),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D), ‘시설운영관리 위한 법제도와 윤리강령’(E),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위한 설치 및 지정절차’(F) 순으로 조사되었고, 실습 교육요구도 순위는 ‘노인 대상 실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B),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 및 응급처치, 재활 및 물리치료’(C),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상담’(A),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D),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위한 설치 및 지정절차’(F) ‘시설운영관리 위한 법제도와 윤리강령’(E)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사 직군의 수행도 순위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상담’(A), 노인 대상 실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B), ‘재활 및 물리치료’(C),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D), ‘시설운영관리 위한 법제도와 윤리강령’(E),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위한 설치 와 지정절차’(F) 순으로 조사되었고, 실습 교육요구도 순위는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D),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 응급처치, 재활 및 물리치료’(C), ‘노인 대상 실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B),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상담’(A), ‘시설운영관리 위한 법제도와 윤리강령’(E),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위한 설치 및 지정절차’(F) 순으로 조사되었다.

간호조무사 직군의 수행도 순위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상담’(A),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 응급처치, 재활 및 물리치료’(C), ‘노인 대상 실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B),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D), ‘시설운영관리 위한 법제도와 윤리강령’(E),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위한 설치 및 지정절차’(F) 순으로 조사되었고, 실습교육 요구도의 순위는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 응급처치, 재활 및 물리치료’(C), ‘노인 대상 실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B),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D), ‘노인에 대한 이해

Table 4. Performance and practical training needs rank for elderly care service jobs

(N=100)															
Senior caregiver				Social worker				Nursing assistant				total			
Performance		PTN ¹⁾		Performance		PTN ¹⁾		Performance		PTN ¹⁾		Performance		PTN ¹⁾	
Mean ± SD	ran	Mean ± SD	ran	Mean ± SD	ran	Mean ± SD	ran	Mean ± SD	ran	Mean ± SD	ran	Mean ± SD	ran	Mean ± SD	ran
(A) 2.88 ± 0.73	1	3.20 ± 0.58	3	3.26 ± 0.87	1	2.89 ± 1.15	4	2.64 ± 0.96	1	2.98 ± 0.82	4	2.93 ± 0.85	1	3.02 ± 0.85	4
(B) 2.48 ± 0.92	3	3.24 ± 0.60	1	3.11 ± 0.88	2	3.11 ± 1.08	3	2.38 ± 1.00	3	3.11 ± 0.82	2	2.66 ± 0.93	3	3.15 ± 0.83	3
(C) 2.80 ± 0.82	2	3.20 ± 0.50	2	3.00 ± 0.82	3	3.16 ± 1.07	2	2.53 ± 0.96	2	3.18 ± 0.90	1	2.78 ± 0.87	2	3.18 ± 0.82	2
(D) 1.92 ± 0.76	4	3.12 ± 0.60	4	2.79 ± 0.92	4	3.74 ± 0.45	1	2.16 ± 1.04	4	3.09 ± 0.88	3	2.29 ± 0.91	4	3.32 ± 0.64	1
(E) 1.68 ± 0.69	5	2.44 ± 0.77	6	2.53 ± 1.07	5	2.42 ± 0.84	5	2.11 ± 1.06	5	2.59 ± 0.93	5	2.11 ± 0.94	5	2.48 ± 0.85	5
(F) 1.60 ± 0.66	6	2.48 ± 0.71	5	2.26 ± 1.15	6	2.26 ± 0.87	6	2.04 ± 0.99	6	2.55 ± 0.95	6	1.97 ± 0.93	6	2.43 ± 0.84	6
total 2.23 ± 0.76	3.50	2.95 ± 0.63	3.50	2.83 ± 0.95	3.50	2.93 ± 0.91	3.50	2.31 ± 1.00	3.50	2.92 ± 0.88	3.50	2.46 ± 0.90	3.50	2.93 ± 0.81	3.50

¹⁾ PTN: Practical Training Needs

와 노인 상담(A), ‘시설운영관리 위한 법제도와 윤리강령’(E),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위한 설치 및 지정절차’(F)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 직군의 평균으로 본 수행도 1순위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상담(A), 실습교육 요구도 1순위는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D)로 조사되었다. 다음 Table 4와 같다.

4. 논의

이 연구는 D시에 위치한 K 사이버대학 재학생 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케어 관련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대상으로 노인케어 직무에 대한 수행도 및 실습교육요구도를 비교하여 노인케어실무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Kim, Sa와 Yoon[10]의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케어를 제공하는 인력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룹으로 나누고 직종별로 적합한 교육내용을 확인하고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노인케어를 제공하는 인력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노인케어 전문교육 요구도(범위:1-4점)를 조사한 결과 평균 3.62±0.59점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요양보호사 3.88±0.33점, 사회복지사 3.79±0.71점, 간호조무사 3.45±0.60점 순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요양보호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Park와 Lee[3]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전문화 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노인케어 전문교육 요구도는 요양보호사 3.88±0.33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Kim, Sa와 Yoon[10]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은 먼대면 교육의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추후 온라인 교육의 체계적인 활성화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노인케어 온라인 교육요구도(범위:1-4점)를 조사한 결과 평균 3.47±0.58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사 3.79±0.42점, 요양보호사 3.40±0.58점, 간호조무사 3.39±0.59점 순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자는(근무특성상 교대근무의 형태가 많고), 케어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근거리에서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시간을 비워 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여건이다.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이 중장년층의 고졸학력 여성으로 학습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밀접한 사례중심의 교육내용으로 반복학습이 가능한 형태의 교육형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Kim, Sa와 Yoon[10]의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간중심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Lee[12]과 Yoon[13]의 연구에서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기술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도 대상자 및 가족과 갈등을 겪는 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한다. 특히 서비스대상자인 노인과는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노인케어 직무에 수행도 중 세 그룹 평균 1순위가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상담’으로 가장 많은 수행을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사 3.26±0.87점으로 간호조무사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 Park와 Lee[3]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53.8%가 와상·거동

불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가프로그램 지원센터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76.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노인 대상 실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에서는 사회복지사가 3.11.±0.88점으로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 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p<0.05$) 실제 운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사회복지사가 주도함을 알 수 있었다.

Kang[14]와 Chang[15] 연구에서 노인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케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시설 전 직업군에 치매전문교육을 법정 의무화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요 치매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독거노인 집단의 치매예방 및 인지기반 중재방안이 개발이 구성되어져야 하고[16], 치매환자 가족의 개인차원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7]. 이 연구에서도 실습교육요구도의 세 그룹 평균 1순위가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으로 조사 되었으며, 사회복지사가 2.79±0.+92점으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이 연구는 노인케어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의 직무 수행도 및 실습교육 요구도를 비교하여 노인케어 관리를 위한 융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서는 각 직군의 직무와 이에 따른 과업 및 과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세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맞춤형 노인케어 온라인 무료 교육 콘텐츠의 개발 보급을 위한 보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노인케어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K 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 중 노인케어 관련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100명 대상으로 2019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분석, Fisher의 정확한 검정 및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으로는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케어 전문교육 요구도는 요양보호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노인케어 온라인 교육요구도 사회복지사

가 간호조무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수행도 중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상담'에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순으로 조사되었고, 사후분석 결과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노인 대상 실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 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시설운영관리 위한 법제도와 윤리강령'에서도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 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실습 교육 요구도 중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보다 수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세 직군의 평균으로 본 수행도 1순위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 상담'(A)으로 조사되었고, 실습교육 요구도 1순위는 '치매·호스피스와 웰다잉'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결과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노인케어를 전담하고 있는 대상 직군의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화가 시급히 필요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수강 가능한 직군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추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직군의 직무 수행도 및 실습교육 요구도를 비교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개 사이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태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일개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규모와 지역에서 직군별 대상으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케어서비스를 실시하는 요양시설 관련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의 세분화된 직무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통해 대상자의 주관적 의견을 조사하였다. 추후 직군의 전문성에 입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각 군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내용분석 등을 통한 질적 연구의 시도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9). Statistics on the Aged.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7226
- [2] J. W. Choi, M. U. Chun & S. G. Kang. (2017).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ctivity Type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431-444.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12.431>
- [3] S. W. Park & W. J. Lee. (2019). Improvement of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Through FGI.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19(1), 587-59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1.587>
- [4] J. Y. Kim & J. M. Lee. (2018). A Study of the Working Condition of Care Workers working at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y and Policy Proposals. *Journal of Care Management*, 27, 133-165. DOI: <http://dx.doi.org/10.22589/kaocm.2018.27.133>
- [5] G. S. Lee. (2018). Educational needs for caregivers' job training using IPA analysis. *Journal of Care Management*, 28, 5-28. DOI: <http://dx.doi.org/10.22589/kaocm.2018.28.5>
- [6] Long-term Care Insurance a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2018). The first half of 2018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ternet]. Won-ju: Long-term Care Insurance. <http://www.nhis.or.kr/wbdya/wbdyaList.xx#>
- [7] S. M. Park & S. Y. Mun. (2016). A Study on IPA of the Care helper's Task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3), 163-191. DOI: <https://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430227>
- [8] J. Kim & S. Y. Lee. (2013). A Study on Care Workers' Job Performance and Competency at Long-Term Care Hom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2), 243-273. DO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0474>
- [9]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8). Training guideline for elderly caregivers.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
- [10] D. E. Kim, G. H. Sa & J. Y. Yoon. (2019). A Delphi Study for Developing a Person-centered Dementia Care Online Education Program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Acad Community Health Nurs*, 30(3), 295-306.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9.30.3.295>
- [11] M. S. Song, J. H. Kim & N. Y. Yang. (2019). Job Performance, Educational Needs, and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mong Care 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Acad Soc Home Care Nurs*, 26(2), 166-179. DOI: <https://doi.org/10.22705/jkashcn.2019.26.2.166>
- [12] G. S. Lee. (2018). Educational needs for caregivers job training using IPA analysis. *Journal of Care Management*, 28, 5-28. DOI: <http://dx.doi.org/10.22589/kaocm.2018.28.5>
- [13] K. A. Yoon. (2019) Integrated Care Setting for the Elderly and the Roles of Social Workers.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19(3), 441-456. DOI:<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994787>
- [14] S. J. Kang. (2018). A Study Qualitative Research on Service Providers and Users' Dignified Care Experience for Long-term Care Facility.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9(1), 104-152. DOI: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6416408&vendorGb=01&academyCd=20051>
- [15] H. S. Chang. (2011). Analysis of Performance Requirement for Long-term Care Workers of Home Visit Care and Home Visit Bathing based o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3), 77-88. DOI: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6198>
- [16] M. J. Ham & T. H. Cha. (2018). Effects of Dementia Risk Factors on the Cognitive Function Ability declin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8), 265-272.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8.265>
- [17] J. E. Lee & I. S. Ko. (2018). The Relationship of Caregiving Appraisal and Family Function among Senile Dementia Patients' Families using In-home Service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8), 319-33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8.319>

소 권 섭(Kwon-Seob So)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경영대학원 병원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1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병원경영, 의료서비스

· E-Mail : sks@kycu.ac.kr

김 용 덕(Yong-Duck Kim)

[정회원]



- 2016년 8월~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케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 E-Mail : ydkim@kycu.ac.kr

황 혜 정(Jeong-Hye Hwang)

중신학원



- 2010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예방의학과(의학박사)
- 2012년 3월 ~ 2018년 2월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조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질환, 보건교육학, 보건

정책, 예방의학

· E-Mail : hhj@kycu.ac.kr